

# 청자-화자간 역동과 일본어 대명사의 문법화\*

송경안  
(전남대학교)

**Song, Kyung-An. 2011. Speaker-Hearer Dynamics and Grammaticalization of Japanese Pronominal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9(1). 61-78.** It was one of the remarkable achievements in recent studies on grammaticalization that some cognitive forces or cognitive universals have been found in the development of human languages. The interface between pragmatics and grammaticalization has thereby been made identified, i.e. the dynamic relation of speaker and hearer could be at work in grammaticalization processes. This paper examines pronominals in Japanese on behalf of an interactive approach. In the history of the Japanese language, we observe that the pronominal forms are very often devaluated and eroded or replaced by the new forms. The general tendency of human languages that highly-valued expressions are devaluated over time seems to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se developments. The indirectness and the politeness principles seems to be at work in this process, which belongs to the speaker-hearer dynamics of human speech.

**Key Words:** grammaticalization, devaluation, indirectness, Japanese pronominals, speech dynamics

## 1. 서론

언어는 크게 어휘소와 문법소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의 많은 문법소들이 어휘소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어휘소로부터 문법소로의 변화과정을 문법화라 부른다 (Kuryłowicz, 1975: 52; Heine, 2002). 문법화의 동인 및 기제로는 은유, 환유, 재분석 등

---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WCU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된 것이다(과제번호: R33- 10011).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필자는 독어학 전공자로서 다른 언어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여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만족스러울 만큼 수용할 수는 없었음을 밝힌다.

이 있는데(이성하, 1998, 제6장 참조), 필자는 줄고 Song(2002), 송경안(2003) 등에서 문법화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동인을 대화상황에서 전개되는 화자-청자의 역동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논구한 바 있으며, Song & Heine (투고 중)에서는 한국어의 대명사 및 호칭표현의 문법화에서 이러한 동인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화자-청자 사이의 역동적 동인은 한국어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범언어적 현상이라는 것이 필자의 시각인바, 본 논문은 일본어 대명사의 변천을 중심으로 이 입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제2장에서 청자-화자간 역동과 문법화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이어서 제3장에서 일본어 대명사의 변천 및 문법화에 나타난 청자-화자간 역동에 대해 살필 것이다. §3.1에서는 지칭의 간접성 및 겸손/존대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 §3.2에서는 존칭 대명사의 평가절하 및 새로운 존칭 형태의 등장, §3.3에서는 대명사 표현의 인칭간 전환에 관하여 각각 논구할 것이다. 일본어 대명사는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방극철(2010) 교수 등이 이에 대해 밀도 있게 잘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sup>1)</sup> 필자는 이러한 변화 과정의 저변에 화자와 청자의 역동적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이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 2. 문법화의 동인으로서 화자-청자간 역동

화자-청자 간의 역동적 관계에서 언어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으로 우리는 (1)과 같은 세 가지 보편적 원리를 상정할 수 있겠다(Song, 2002; Song & Heine, 투고 중 참조).

### (1) 언어변화 및 문법화에 대한 세 가지 역동적 동인

- a. 겸손의 원리
- b. 고가치 표현의 일반화 및 평가절하(devaluation)
- c. 간접성(indirectness) 선호경향

(1a)는 Lakoff(1973, 1977)의 겸손의 원리를 말한다(Leech, 1983, 제6장 참조). 이는 모든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겸손해야 한다는 원리로서 어느 문화에서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이며 Grice(1975)의 협력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와 함께 중요한 대화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1) 본 논문의 일본어에 대한 자료는 일본어 전공 학생의 도움을 받아 박영순(1996), 이용덕(2004) 등 국내 논문과 Whitman(1999) 그리고 다음(Daum) 인터넷 일본어 사전(<http://jpdic.daum.net>)에서 얻은 것이다. 자료의 해석 및 내용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다.

(1b)의 고가치 표현의 일반화 및 평가절하 현상도 문법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고가치 표현이란 존칭표현, 겸손표현, 긍정적 표현 등의 가치 있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일반화되고 그 가치가 떨어져 더 이상 고가치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 이때 언어 사용자들은 새로운 고가치 표현들을 만들에 내는데 이 역시 시간이 가면 가치가 떨어진다. 이러한 일들은 특히 호칭이나 직업을 나타내는 말들에서 많이 나타난다(Paul, 1919: 123; Leech, 1974, 제4장).

이와 관련해서 우리말 1인칭대명사 “나”와 2인칭대명사 “너”의 기능적 변화는 매우 흥미롭다. “나”와 “너”는 가장 오래된 1인칭 및 2인칭대명사로서 15세기 이전에는 유일한 1, 2인칭대명사이었으며 이 시기에는 화계 중립적으로 두루 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김미형, 1995: 47). 시간이 감에 따라 한국어에는 화계체계가 발달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대명사 형태가 나타났으며, 이들 또한 시간과 함께 화계상의 변화를 겪었다.<sup>2)</sup>

1인칭과 2인칭 대명사 “나”, “너”의 기능적 변화는 이 과정에서 좋은 대조를 이루며 여기에는 발화상황에서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은 높여 주려는 기본적인 전략이 작용한 것 같다. 이에 따라 원래 화계 중립적이던 1인칭대명사 “나”는 조금씩 자신을 내세우는(assertive) 느낌을 주고 공손하지 못한 표현으로 변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손한 1인칭대명사에 대한 필요가 새로 생겼을 것이고 이 문법적 공백(grammatical gap)을 “저”가 채웠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원래 화계 중립적이던 2인칭대명사 “너”는 시간이 감에 따라 평가절하 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위 및 상위 화계의 2인칭대명사에 대한 필요가 생겼을 것이다. 이 문법적 공백을 “당신”이나 “자네” 등이 채웠을 것이다. “나”와 “너”의 기능적 변화과정을 요약하면 (2)와 같다(김미형, 1995 참조).

### (2) 대명사 “나”와 “너”의 기능적 변화과정 비교<sup>3)</sup>

인칭대명사 “나”	1인칭대명사 “너”
제1단계: 화계 중립적(16세기 이전)	화계 중립적(16세기 이전)
제2단계: 불공손 표현(19세기)	평가절하 (16세기)
제3단계: 공손표현에 대한 필요(19세기)	공경표현에 대한 필요(16세기)
제4단계: 공손표현 발달(19세기 말)	공경 표현 발달 (16세기 말)

2) 이 논문에 대한 익명의 심사위원은 원각경언해(1465) 등에 이미 대명사 ‘저’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심사위원은 또 중세국어에 이미 철저한 화계 체계가 정립되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이 논문에 대한 익명의 심사위원은 ‘너’와 ‘나’의 화계와 시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c)의 간접성 선호경향이란 발화상황에서 직접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피하고 우회적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대화상황은 매우 역동적이며 유기적인 것으로서 언어 사용자는 끊임없이 상대를 의식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이때 우리는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상대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간접성 선호경향이다. 인간언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적(modal) 표현이나 어법들, 간접화행(Searle, 1975; Davison, 1975 참조) 그리고 Grice (1975, 1978)의 대화함축 등이 이 범주에 속할 것이다.

간접성은 또 다양한 명사나 대명사 형태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대화상황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게 하는 부정대명사의 사용이 있는데 독일어의 *man*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말의 경우 명사나 대명사를 생략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역시 간접성을 위한 좋은 전략이다. 또 대화상황에서 상대방을 꼭 집어 한 사람만 가리키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가리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역시 언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럽 언어에서 복수형을 가지고 단수 2인칭으로 쓰는 것이 그 예이다. 한국어에서는 “거기, 그쪽” 등과 같이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나 부사가 2인칭으로 쓰이며 “집, 맥”과 같이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2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명사구나 대명사와 관련해서 발화의 간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리는 (3)과 같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definiteness’, ‘referentiality’ 등에 관한 논의는 Givón, 1978, 2001 참조).

### (3) 명사구의 간접성에 대한 요인들

direct	indirect
a. definite	indefinite
b. deictic	non-deictic
c. referential	non-referential
d. singularity	collectivity/plurality
e. pro-form	pro-dropped

## 3. 일본어 대명사에 나타난 화자-청자의 역동

일본어는 전형적인 열린 대명사 체계(open system)의 언어이며<sup>4)</sup> 시대에 따라 대명사 표현의 변화가 심한 언어이다. 즉 일본어는 자칭(1인칭), 대칭(2인칭) 등 대명사 표현을 위해

4) 대명사의 열린 체계와 닫힌 체계에 대해서는 송경안(2010) 참조.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이러한 표현들이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이용덕(2004)의 자료에 따르면 상대에 쓰인 자칭(1인칭), 대칭(2인칭) 표현이 현대에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는 없다. 일본어의 이와 같은 현상은 위에서 제시한 담화상황의 세 가지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겠다.

### 3.1. 지칭의 간접성 및 겸손/존대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sup>5)</sup>

#### 3.1.1 명사 표현

자칭과 대칭 대명사를 위해 명사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지시의 간접성과 겸손 및 상대 높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일본어의 자칭과 대칭 표현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관찰할 수 있다.

**겸양 및 존대 명사:** 겸양 및 존대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1인칭과 2인칭 대명사로 쓰인다((4) 참조). 겸양 및 존대는 화자-청자 간 역동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명사가 대명사로 변화하는 것은 현저한 문법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4) a. 1인칭 표현: *boku*(僕; 중), *watasi*(私; 개인)  
 b. 2인칭 표현: *kimi*(君; king)

겸손의 원리에 따르면 화자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청자)은 높여야 한다. 위 (4)의 표현들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watasi*(私; 개인)는 *watakushi*(私; わたくし; private)에서 유래한 것이다. *watakushi*(私; わたくし; private)는 *oyake*(公; public, official, royal)에 반대되는 개념이며 *oyake*(公; public, official, royal)는 원래 ‘大家’(‘great house, great family’)라는 뜻이다. *watakushi*(私; わたくし; private)에서 *wata*(わた)는 원래 “속, 내장”이라는 뜻이다.

**장소, 몸, 손 등의 명사표현:** 대화상황에서 사람을 간접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일본어에서는 또 장소, 몸, 모양 등을 나타내는 명사표현들이 사용된다((5) 참조).

- (5) a. *kata*(方): *anata*(貴方; 彼方; ‘yonder’ = you.HON), *konata*(此方; ‘here’; 이분, 이 사람; I, you, he), *sonata*(其方; ‘there’ = you.MID),

5) 이 장의 일본어 자료들은 박영순 (1996), 이용덕 (2004)과 다음(Daum) 인터넷 일본어 사전 (2010)을 참고한 것이다.

- donata(何方; 'which side'; who.HON)
- b. temae(手前, 'hand + front; near front' = I)
- c. ora(己; 'body' = I)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특기할 일은 3인칭을 나타내기 위해 발달한 *konokata*, *sonokata*, *anokata* 등의 지칭어들이다((6) 참조).

- (6) a. ko-no-kata: this-POSS-side 'this side, here = this person.HON'
- b. so-no-kata: that-POSS-side 'there = that person.HON'
- c. a-no-kata: yonder-POSS-side 'yonder = the person.HON yonder'

흥미로운 것은 (6)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kata*('side')가 (7)과 같이 '사람을 직접 지칭하는 명사 *hito*('person') 보다 더 존칭형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람을 직접 지칭하는 것보다 장소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지칭의 간접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7) a. ko-no-hito: this-POSS-person 'this person'
- b. so-no-hito: that-POSS-person 'that person'
- c. a-no-hito: yonder-POSS-person 'yonder person'

(5)의 *anata*('yonder')는 원래 '彼方'(that side, there)에서 온 것으로 단순히 '저기, 저쪽'이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며 그 자체에 존경을 나타내는 '貴'(valuable)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2인칭으로 사용되면서 존칭이 되었고 그 의미를 한자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 '貴方'이 된 것이다. 이밖에 일본어에서는 *mae*(前; 'front'), *taku*(宅; 'house'), *den*(殿; 'palace') 등 장소 명사들이 수식어들과 결합해서 대명사 표현을 위해 사용되며, '모양'이라는 의미의 *sama*(様; 'appearance/shape')도 존칭으로 쓰인다.

**겸양 및 존대 수식어와 명사의 결합:** 겸양 및 존대를 나타내는 수식어와 다양한 명사들이 결합해서 대명사를 만들기도 한다((8) 참조).

- (8) a. o\_mae(お前, 御前: 'royal front = you)
- b. anata(貴方; 'valuable side' = you.HON)
- c. otaku(お宅, 御宅; 'royal house' = you)
- d. ki\_sama(貴様; 'valuable appearance' = you; no more honorific)
- e. syou\_sei(小生; 'little person' = I)

**존대 수식어와 존대 명사의 결합:** 존대 수식어와 존대 명사들이 결합해서 대명사를 만들기도 한다((9) 참조).<sup>6)</sup>

- (9) a. kikun(貴君; 'valuable king' = you)
- b. kiden(貴殿; 'valuable palace' = you)
- c. kikei(貴兄; 'valuable + elder brother' = you)
- d. sonkei(尊兄; 'respected + elder brother' = you)
- e. ooe(大兄; 'big + elder brother' = you)

**친족관계, 지위/직업표현:** 친족관계, 지위/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들도 대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며 몇 가지 예를 들면 (10)과 같다.

(10) 대명사로 쓰이는 친족관계, 지위/직업표현

일본어 표기	로마자 표기	의미
課長	kachou(san)	과장님
先生	sensei	선생님
看護婦さん	kangohusan	간호사
お医者さん	oisyasan	의사
姉ちゃん	neechan	언니/ 누나
兄ちゃん	niichan	형/ 오빠
お祖母さん	obaasan	할머니
お祖父さん	oziiisan	할아버지
お母さん	okaasan	어머니
お父さん	otousan	아버지
叔父(伯父)さん	ozisan	아저씨, 부모의 형제
叔母(伯母)さん	obasan	아주머니, 부모의 자매

### 3.1.2. 복수표현이 단수로 쓰이는 경우

복수표현들이 단수를 지칭하면서 겸손이나 존경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동서양에 걸쳐 다양한 언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일본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된다((11) 참조). (11)의 예는 모두 1인칭에 해당하며 일본어에서 존칭을 위한 2인칭 복수형은 관찰되지 않는다.

6) 익명의 심사자는 (9)-(10)의 표현들의 대명사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를 넓은 의미에서 대명사 표현으로 보며 줄고 송경안 (2010)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 (10) a. wagahai(我輩; I + 'wrong crowd' = we, I)  
 b. warera(我等; I + PL = I, we)  
 c. wareware(我我; I + I = I, we)  
 d. oira(俺等; I + PL = I, we)

### 3.2. 존칭 대명사의 평가절하 및 새로운 존칭 형태의 등장

한 때 상대방의 높임을 나타내던 대명사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고 중국에는 비칭으로까지 발달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화자 자신을 낮추기 위해 쓰이던 표현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 더 이상 겸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일도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자칭 및 대칭표현의 변화를 겪는 일본어 대명사 체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이용덕, 2004: 155f).

이용덕(2004), 박영순(1996)을 토대로 상대와 현대 일본어에서 쓰이는 자칭과 대칭 표현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11)과 같이 이 언어의 대명사 표현의 변화가 얼마나 현저한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 (11) 일본어 1인칭, 2인칭의 변화

##### a. 상대 1인칭

대명사 표현	의 미	한자표기
a	나(일인칭 대명사)	
are	나(일인칭 대명사)	
wa	나(일인칭 대명사)	我
ware	자기 자신(일인칭 대명사)	我/吾
wake	나(일인칭 대명사)	

##### b. 현대 1인칭

대명사 표현	의 미	한자표기
warera	우리들	我等
wareware	우리들	我我
syousei	소생(남성 문어체 겸사말)	小生
yo	나	余
ore	나(남자의 일인칭 대명사)	俺
ora	나 (현재는 속어로 표기)	己



temae	나. 저(인칭대명사)	手前
watashi	나, 자기자신	私
watakushi	나, 저(격식차린 일인칭어)	私
oira	나, 우리(친밀한 남성어)	俺等
kochitora	우리, 우리들, 나	
kochira	저, 이쪽(공손한 표현)	此方
kotchi	이쪽	
watai	나(와타시의 변한말)	
watashi	나, 자기 자신	私
watchi	나(에도시대 후기에 장인이나 유곽에서 쓰던 말)	
atai	나(와타시의 변한말)	
atakushi	나, 저(격식차린 일인칭어)	私
atashi	나(와타시의 변한말)	私
wagahai	나, 본인(남성이 쓰는 말)	我輩

## c. 상대 2인칭

대명사 표현	의 미	한자표기
na	너, 그대	汝(거의 안씀)
nare	너(동등하거나 낮은 상대)	汝(거의 안씀)
i	너, 당신	
ore	너, 자네(낮춤말)	俺/己
wake	상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	汝(거의 안씀)
mimashi	그대, 당신(러시아어유래)	汝
kimi	당신, 그대	君
namuchi	고어로 너, 당신	汝

## d. 현대 2인칭

대명사 표현	의 미	한자표기
kimi	자네, 그대	君
omae	너, 자네	お前
kika	귀하(편지글)	貴下
kikei	귀형(편지에서 남자가 동년배나 선배를 일컫는 말)	貴兄
kisama	너, 자네(에도시대에는 당신으로 썼음)	貴様
kikun	자네(남자끼리 편지에서 쓰는 높임말)	貴君
kiden	귀하(편지에서 동년배 이상의 높임말)	貴殿

anata/anta	당신, 닥	貴方
anata	당신, 닥	貴方
anta	당신, 닥	
sochitora	그쪽들, 당신들	
otaku	친하지 않은 상대방의 높임말	お宅
syokun	여러분(제군)	諸君
ooe	동성의 연장자를 일컬을 때	大兄
sonkei	동배인 상대를 높이는 말	尊兄

(11)의 자료에 따르면 상대에 쓰인 자칭(1인칭), 대칭(2인칭) 표현이 현대에까지 남아 있는 경우는 없고 그 대신 훨씬 다양한 표현들이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의 대칭 낮춤 표현 *ore*가 현대에는 자칭으로 쓰이고 있는 점이 특히 한데(11b-5, 11c-4 참조), 이에 대해서는 아래 §3.3.에서 따로 논의하겠다.

(11)의 표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일본어의 대명사 표현은 존칭/겸양의 위계와 관련 하여 많은 변화를 겪는다. 1인칭의 경우 겸양 표현이 비겸양 표현이 되고 2인칭의 경우 존칭 표현이 비칭표현으로 변한다. 몇 가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상대에 쓰였던 대표적인 1인칭 표현 *ware*는 현대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으며 그 복수표현 *warera*, *wareware*가 쓰이고 있는데, 단수를 지칭하면서 복수형을 쓰는 것은 지칭의 간접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고시대에 들어오면 장소를 나타내는 말 *koko*(此處/此所), *konata*(此方) 그리고 가까운 물건을 가리키는 *kore*(‘this’)가 1인칭으로 쓰이기 시작한다(박영순, 1996: 74). *koko*(此處/此所), *konata*(此方)와 같이 사람을 가리키는데 장소 명사를 쓰는 것은 지칭의 간접성으로 설명할 수 있고 *kore*(‘this’)는 화자를 낮추는 겸손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겠다. 중세에 들어오면 1인칭에 *watakushi*(私; わたくし; ‘private’)가 쓰이기 시작하며 이는 강호시대(근세)에 와서 *watasi*(私; 개인)로 바뀌어 현대에까지 쓰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watakushi*(私)는 *ooyake*(公; ‘public, official, royal’)에 반대되는 개념이며 *ooyake*(公)는 원래 대가(大家; ‘great house, great family’)라는 뜻이다. *watakushi*(私)는 따라서 화자 자신을 낮추기 위한 표현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대 일본어에서 *watakushi*나 *watasi*를 겸양표현으로 느끼지는 않는다(이용덕, 2005: 154). 현대에 와서 등장한 1인칭 표현으로 *boku*(僕)가 있다. 이는 “중, 하인”이 뜻으로 당연히 화자를 낮추는 말로 출발했다. 그러나 현대 일본어에서 이는 더 이상 겸양표현이 아니다(Daum 인터넷 일본어 사전, 2010; 이용덕, 1994; 2004: 156).

1인칭의 경우 처음에 비칭으로 쓰이던 말이 시간이 감에 따라 주장하는(assertive) 표현이 되는 반면 2인칭의 경우 한 때 존칭으로 쓰이던 표현들이 그 가치를 잃고 더 이상 존칭으로 쓰이지 않은 일이 많다. *kinji*(君)는 원래 “왕”을 뜻하는 말로 상대에는 2인칭 존칭 표현이

었으나 현대 일본어에서는 존칭이 아니다(박영순, 1996: 74). 상대에 2인칭 존칭으로 쓰이던 *mimashi*, *namuchi* 등은 일본어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중고(中古) 시대에 나타난 2인칭 표현 *omae*(お前; 御前)는 “왕의 앞”이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극존칭이었으나, 현대 일본어에서는 같은 또래나 손아랫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박영순, 1996: 74). 중세에 들어 *wagoryo*(我御料), *wanushi*(我主), *wasou*(我僧) 등이 2인칭 존칭으로 나타나는데 현대 일본어에서 이들은 더 이상 쓰이지 않거나 비존칭으로 쓰인다. *kisama*(貴様; ‘valuable appearance’)의 경우 강호(江戸) 시대에는 2인칭 존칭으로 썼으나, 지금은 절친한 사이나 손아랫 사람을 알잡아 부르거나 욕하는 말로 쓰인다(이용덕, 2004: 156; Daum 인터넷 일본어 사전, 2010). *anata*(貴方; あなた)는 강호 시대에 2인칭 존칭 표현으로 등장한 말이다. 이는 원래 원칭(遠稱)으로 쓰이던 장소 명사 ‘彼方’(‘that side, there; yonder’)에서 온 것으로 오늘날까지 대표적인 2인칭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 3.3. 대명사 표현의 인칭간 전환

일본어는 역사적으로 대명사 표현의 변화가 심한 언어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대명사 표현이 소멸되기도 하고 새로운 대명사 표현이 생기기도 하며 대명사 표현의 인칭간 전환이 일어나기도 한다.<sup>7)</sup> 일본어 대명사 표현의 인칭간 전환에 대해서는 Whitman(1999)에서 자세히 논의하고 있는바, 이 장은 이 Whitman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청자-화자간 역동의 관점에서 이를 논구하고자 한다. 여기서 인칭이라 함은 재귀칭까지를 포함한다.

#### 3.3.1. *ware onore*

1인칭에서 2인칭으로 전환한 예는 *ware*나 *onore* 장소 명사 *konata*(‘this side, here’)등에서 볼 수 있다. 먼저 *ware*의 어원을 보면 (12)와 같으며, *ware*의 기능 변화를 역사적으로 정리하면 (13)과 같다(Whitman, 1999: 381).

(12) *ware*(我): *wa-* (‘ego’) + *-re* (pronominal suffix)

(13) *ware* 기능의 시대적 변화

- (a) 8세기: 화자 지시어(재귀사, 자기 지칭어)<sup>8)</sup>
- (b) 12-13세기: 청자 지시어, 낮춤말이 아님
- (c) 14세기: 친근칭, 낮춤말

7) 대명사 표현의 인칭간 전환에 대한 다른 언어의 예는 Heine & Song (2010) 참조

8) 앞서 “자칭”을 1인칭의 의미로 썼기 때문에 “self-indicator”는 “자기 지칭”으로 번역하겠다.

- (d) 현대 표준일본어: *ware*는 재귀적 의미로 쓰이고 *ware-ra*(‘we’), *wareware*가 1인칭 복수로 쓰임
- (e) 현대 일본어 방언:
- 오사카 지역의 경우 아주 거칠고 낮추는 말로서 (c) 단계에서 더 나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 서부 지역에서는 (b)-(c)가 공존한다.
  - 일부 방언에서는 (a) 단계도 관찰된다.

이에 따르면 *ware*는 8세기부터 1인칭과 재귀칭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는 재귀칭에서 시작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재귀칭(자기 지칭)이 1인칭보다 지시범위가 넓고, 지시범위가 넓은 쪽에서 좁은 쪽으로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sup>9)</sup> 12-13세기에 들어 *ware*는 2인칭 대명사로 발전한다.

Whitman(1999)는 Susuki(1973)에 따라 이를 감정적 동일시(emphatic identification)로 설명한다. 감정적으로 2인칭을 1인칭(화자)와 동일시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인칭대명사 표현 가운데 왜 *ware*와 *anore*가 인칭의 전환을 보이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본 논문의 화자-청자 역동의 가설에 따르면 이러한 인칭의 전환은 이들이 갖는 본래의 자기 지칭적 의미에서 기인한다. 즉 자기 지칭이라는 것은 한국어의 “본인”과 같이 대화 상황에 따라 1인칭, 2인칭, 3인칭을 모두 가리킬 수 있다. 일본어의 경우 자기 지칭의 *ware*가 먼저 1인칭으로 쓰였다가 후에 2인칭으로도 쓰이게 된 것이다. 화자-청자 역동의 가설에 따르면 이들은 둘 다 비한정적(indefinite) 혹은 덜 한정적인(less definite) 용법에서 한정적(definite) 용법으로 전환된 것이다. 즉 지칭의 간접성을 높이기 위해 화자가 덜 한정적인 표현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1인칭을 가리키던 *ware*가 2인칭으로 넘어갈 때 존칭으로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이 존칭의 의미는 지칭의 간접성에서 유래한 것이다((1c) 참조).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그 적용범위가 일반화되면서 더 이상 존칭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비칭으로 변했을 것이다 ((13c) 참조). 현대 일본어에서는 방언에 따라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 단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anore* 역시 1인칭→2인칭 전환의 예이다. *anore*의 어원은 (14)와 같으며 그 기능적 변화는 (15)와 같다(Whitman, 1999: 381f).

(14) *anore ono* (‘self’) + *-re* (pronominal suffix)

9) 예를 들면 유럽 언어의 경우 지시범위가 넓은 복수 대명사가 단수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5) *onore* 기능의 변화

- (a) 자기 지칭어, 재귀사, 현대 일본어에서도 재귀사로 쓰이고 있음
- (b) 1인칭 겸양표현
- (c) 2인칭 비칭으로 발달

*onore*(おのれ; 己)는 현대 일본어에서도 재귀사로 쓰이고 있는 말로<sup>10)</sup> 1인칭과 2인칭으로도 쓰인다. 재귀칭이 1인칭과 2인칭으로 쓰일 수 있는 이유는 위 *ware*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다만 (15)에서와 같이 1인칭으로 쓰이던 말이 갑자기 2인칭 비칭으로 발달했다면 *ware*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요한다.

*onore*(おのれ; 己)는 *ono*, *ore*와 같은 어원이며 *ore*는 상대에부터 일찌감치 2인칭으로 쓰였던 말이다. 따라서 *onore*가 2인칭 비칭으로 발전할 소지는 이미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다. 2인칭 혹은 타칭(3인칭) 비칭으로 쓰이던 표현을 1인칭 겸양표현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sup>11)</sup>

3.3.2. *konata*(‘here’), *sonata*(‘there’), *anata*(‘yonder’)

*konata*(‘here’), *sonata*(‘there’), *anata*(‘yonder’)는 한국어 “이쪽, 그쪽, 저쪽”과 같이 장소를 가리키는 명사인데 일본어에서도 이들이 사람을 가리킬 수 있다. Whitman(1999) 등은 이를 대명사의 의인화(pronominal personalization)로 설명한다. 사물을 의인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왜 의인화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쓰였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인칭표현으로 쓰이는 예는 이밖에도 *mae*(前; ‘front’), *taku*(宅; ‘house’), *den*(殿; ‘palace’) 등이 있다(이용덕, 2004 참조). 의인화 가설은 또 *konata* 혹은 *ko-no-kata*(‘this side’)와 같은 장소표현이 사람을 직접 가리키는 *ko-no-hitu*(‘this person’)보다 더 정중한 표현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필자의 화자-청자 역동의 가설에 따르면 이는 지칭의 간접성으로 설명된다. 즉 장소는 개인보다 지칭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칭의 간접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더 정중한 표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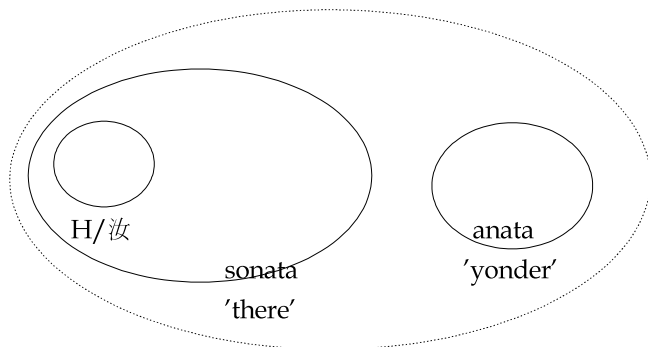
위 세 가지 장소명사 가운데 *sonata*(‘there’)는 과거부터 줄곧 청자를 가리켜 왔다. 화자-청자간 대화 상황에서 *sonata*(‘there’)가 청자를 가리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konata*(‘here, this side’)는 1인칭으로도 쓰이고 2인칭으로도 쓰인다. Whitman(1999: 382)은 이 표현이 1인칭과 2인칭으로 거의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변화했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미로 보아 *sonata*(‘there’)는 2인칭이 자연스럽고 *konata*(‘here’)는 1인칭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konata* (‘here’)는 “1인칭 > 2인칭”의

10) 己おのれの責任せきになん (자기의 책임) (Daum 인터넷 일본어 사전, 2010)

11) 한국어의 1인칭 “저”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볼 수 있다(Song, 2002 참조).

방향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화자-청자 이외에 제3의 대상이 있다면 “이쪽”은 2인칭이 될 수 있다.<sup>12)</sup> 근칭이 2인칭으로 쓰이는 예는 “아니, 이게 누구야?”같은 한국어 문장에서 볼 수 있다. *konata*(‘here’)가 2인칭으로 쓰일 때는 존칭이었고 1인칭으로 쓰일 때는 공식적인 (formal) 표현인데 이 역시 단순한 의인화 가설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필자의 청자-화자 역동의 가설로는 설명이 가능하다. 지칭의 간접성이 커지면서 상대방에게는 높임이 되고 1인칭에게는 조심스러운 표현, 즉 공식적인 표현이 된 것이다.

*anata*(‘yonder’)는 3인칭에서 출발해서 2인칭으로 발전한 것으로 현대 일본어에서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2인칭 표현이다(이용덕, 2004 참조).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는 대화 상황에서 *anata*(‘yonder’)가 제3자를 가리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3인칭이 2인칭으로 쓰이는 것은 청자-화자 역동의 가설에서 지칭의 간접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2인칭 대명사를 직접 쓰는 것보다 3인칭을 쓰는 것이 더 간접적이며 이러한 예는 다른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13)</sup> *anata*(‘yonder’)의 인칭 전환 역시 Whitman(1999) 식의 감정적 동일시나 의인화로는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며 지칭의 간접성의 관점에서 보면 쉽게 설명될 수 있다. *anata*(‘yonder’)의 지칭적 간접성을 공간개념을 통해 나타내 보면 [표1]과 같다.



[표1] 'anata'의 지칭역 및 지칭의 간접성 [H = hearer]

### 3.3.3. *ore, ano, na*

*ore*는 2인칭→1인칭 전환의 예이다. 즉 *ore*는 상대에 2인칭으로 쓰였으며 현대에는 1인칭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위에서 논의한 *anore*(おのれ; 己)의 축약형으로 그 기본의미는 “self”로써 그 자체에 다른 인칭으로 발전할 소지를 안고 있다((12) 참조). *ore*의 “2인칭→1인칭” 전환은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2) “저쪽은 다 된 거 같은데 이쪽은 어떠세요?”

13) 독일어의 “Sie”가 3인칭 복수형이 2인칭 존칭으로 쓰이는 예이다.

*ono*(おの; 己; 'body, self')는 “재귀사→2인칭” 전환의 예이다. 자기 지칭어 *ono*는 *onore, ore*와 같은 어원이며 역사적으로 중앙 방언(central dialects)에서 줄곧 자기 지칭 혹은 재귀칭적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Whitman, 1999: 383). 그러나 현대 일본어의 다른 방언에서는 2인칭(비칭/친근칭)으로 발전한 예가 있으며, 11세기(1002년) 텍스트에서는 승려나 나이트 남성이 1인칭으로 쓰는 예도 있다(ibid, 384). 이 역시 자기 지칭표현이 1, 2인칭으로 발전한 예로서 위 *ware*나 *onore*와 같은 경우라고 하겠다.

일본어 역사에서 또 한 가지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2인칭 *na*(な; 汝; 'you')의 유래이다. Murayama(1950) 등 전통적인 관점은 *na*의 1인칭 유래설인데 Whitman(1999)은 Ôno Tôru(1978: 305)를 따라 재귀사 유래설을 지지하고 있다(Whitman, 1999, 384).<sup>14)</sup> 1인칭 유래설을 뒷받침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현대 일본어의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다(ibid, 384).

- (16) *namuti*(2인칭 존칭) < *na* + *muti* 'person.HON'('my person = you')  
*nabito* (2인칭 친근칭) < *na* + *bito* 'person' ('my person = you')  
*nanimo* ('my wife') < *na* + *imo*('sister, wife')  
*nase* ('my husband') < *na* + *se* ('brother, husband')

Ôno Tôru (1978: 305)는 위의 표현들이 동격 표현이라고 보며 1인칭 유래설을 반대하고 재귀사 유래설을 지지한다(ibid, 384). 이 경우 위 *nanimo, nase*의 뜻은 각각 'you, wife', 'you, husband'가 된다. Ôno Tôru가 2인칭 *na*(な; 汝; 'you')의 재귀사 유래설을 지지하는 근거는 현대 일본어 방언에서 이 표현이 재귀사로 쓰이는 일이 있고 8세기 문헌들에서도 *na*가 화자와 관련된 경우 재귀칭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다(ibid, 384).

필자는 기본적으로 재귀사(자기 지칭) 유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 없이 단순히 “1인칭→2인칭”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왜 1인칭으로 쓰이던 대명사가 2인칭으로 쓰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재귀사 유래설에서 출발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러워진다. 위에서 본 것처럼 재귀칭은 다른 인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16)의 *na*-를 자기 지칭 표현으로 보면 된다.

#### 4. 마무리

일본어의 인칭대명사 체계는 전형적인 열린 체계이다. 이 언어에서는 대명사의 수가 제한

14) 이 글의 Murayama(1950), Ôno(1978)는 Whitman(1999)에서 재인용하였음.

되어 있지 않으며 시대에 따라 쉽게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필자는 화자-청자간 역동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았다. 대화상황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높여 부르려는 경향이 있으며, 한번 높임말로 쓰인 표현은 시간이 감에 따라 그 효력이 약화되거나 상실되어 화자는 또 다른 높임말을 찾게 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기제가 동원되는데 여기에서 필자가 중요한 개념으로 도입한 것이 '지칭의 간접성'이다. 상대방을 직접 지칭하는 것을 피하고 간접적으로 지칭하려는 경향이다. 장소명사, 친족관계어, 직함, 자기 지칭어 등을 2인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지칭의 간접성을 위한 것이다. 인칭대명사에 대한 이와 같은 가설을 필자는 Song (2002) 등에서 한국어를 통해 검토한 바 있고, 다른 언어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 놓는다.

## 참고문헌

- 김미형. (1995). *한국어 대명사*. 서울: 한신문화사.
- 다음(Daum) 인터넷 일본어 사전. (2010). <http://jpdic.daum.net>
- 박영순. (1996). 日本語人稱代名詞の時代的變遷様相についての研究. *신일전문대학 논문집*, 10, 51-75.
- 방극철. (2010). *近代日本語の待遇表現の研究*. 서울: 제이앤시 출판사.
- 송경안. (2003). 청자-화자간 역동과 문법화. *독일언어문학* 22, 53-75.
- 송경안. (2010). 인칭대명사 유형론의 몇 가지 논점에 대하여. *독일언어문학* 47, 65-90.
- 이성하. (1998).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이용덕. (1994). 일본어 인칭대명사 '僕'에 관한 연구. *日本學誌* 14, 245-267. (계명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 이용덕. (2004). 일본어 일인칭대명사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일본어문학* 27, 151-166.
- Davison, A. (1975). Indirect speech acts and what to do with them. In P. Cole &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pp. 143-186). New York: Academic Press.
- Givón, T. (1978). Definiteness and referentiality. In J. H. Greenberg, C. A. Ferguson & E. Moravcsik (eds.),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Vol. 4*. (pp. 291-33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ivón, T. (2001). *Syntax. Vol. 1*.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 J. L. Morgan (eds.),



-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pp.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Grice, H. P. (1978). Further notes on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ed.), *Syntax and semantics 9: pragmatics* (pp. 113-127). New York: Academic Press.
- Heine, B. (2002). On the role of context in grammaticalization. In I. Wischer & G. Diewald (eds.), *New reflections on grammaticalization* (pp. 85-104).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Kuryłowicz, J. (1975). The evolution of grammatical categories. *Esquisses Linguistiques II*. 38-54.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 Lakoff, R. (1973).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Proceedings of Nin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292-305.
- Lakoff, R. (1977). Politeness, pragmatics and performatives. In A. Rogers, B. Wall & J. P. Murphy (eds.), *Proceedings of Texas conference performatives, presuppositions and implicatures* (pp. 79-106). Washington: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Leech, G. (1974). *Semantic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Leech, G. (1983). *The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Murayama, S. (1950). Kodai Nihongo ni okeru daimeishi (Pronouns in Old Japanese). *Kokugogaku* 13, 40-47.
- Ôno, T. (1978). *Nihongo no sogenteki kenkyu*. Tokyo: Takayama honten.
- Paul, H. (1919/1969). *Deutsche Grammatik III*. Tübingen: Niemeyer.
- Searle, J. R. (1975). Indirect speech acts. In P. Cole &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pp. 59-82). New York: Academic Press.
- Song, K.-A. (2002). Korean reflexives and grammaticalization. *Sprachtypologie und Universalforschung* 55(4), 340-353.
- Song, K.-A. & Heine, B. (투고 중), Pronominals, address forms and grammaticalization in Korean: A speaker-hearer dynamic approach.
- Susuki, T. (1973). *Kotoba to bunka*. Tokyo: Iwanami shoten.
- Whitman, J. (1999). Personal pronoun shift in Japanese. In A. Kamio, & K.-I. Takami (eds.), *Function and structure - In honor of Susumu Kuno* (pp. 357-386). Amsterdam: John Benjamins.

송경안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독문과

전화: 062-530-3176

이메일: kasong@chonnam.ac.kr

Received: 11 December, 2010

Revised: 02 March, 2011

Accepted: 14 March, 2011